

원성열 기자의 CAR & TRACK

닛산 '뉴 패스파인더(Pathfinder)'

7인승 대형 SUV의 간판스타, 극대화된 실용성으로 돌아오다

자동차

직장 선택의 기준으로 연봉 대신 워라벨(Work-And-Life Balance)이 꼽힐 정도로 최근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퍼진 이러한 정서는 자동차 선택에도 고스란히 반영된다. 장소와 목적을 가리지 않고 전천후로 쓰이는 실용적인 차량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대형 SUV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일상에서는 비즈니스용으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정숙하고 세련되며, 주말여행이나 가족 모임일 때는 어린아이부터 노부모님까지 모든 가족을 위한 편안하고 안전한 발이 되어주는 차. 바로 닛산 패스파인더다.









7인승 대형 SUV 닛산 '뉴 패스파인더'는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사양으로 구성했으며, 날렵한 스타일의 외관과 여유로운 실내 공간이 특징이다. 닛산 '뉴 패스파인더' 외관 및 내부 모습(왼쪽부터 시계방향). 사진제공 | 닛산

날렵한 아웃도어 스타일, 디자인의 진화
시판 7인승 SUV중 트레일러 토잉 기능
美도로교통안전국 신차 평가에서 최고등급

●닛산 대표하는 베스트셀링 SUV 모델

패스파인더는 닛산을 대표하는 7인승 대형 SUV모델이다. 미지의 땅에서 '길을(path)' '찾는다(finder)'라는 이름처럼 오프로드를 달릴 수 있는 강력함과 가족의 일상과 모험을 콘셉트로 1986년에 최초 개발됐다.

매번 혁신적인 진화를 거쳐 현재의 4세대에 이르렀다. 그동안 고급스럽고 여유로운 실내, 운전자와 탑승자를 배려한 첨단 편의사양, 강력한 주행성능으로 동급 세그먼트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왔다.

국내에는 4세대 모델로 2014년 첫 선을 보였다. 캘리블루북 '2013 10대 베스트 패밀리카'를 비롯해 워즈오토 '2013 10대 인테리어', 파퓰러메카닉스 '2013 오토모티브 엑셀런스 어워드', 애드먼즈닷 '2013 10대 베스트 패밀리카', 모터위크 '2013 드라이버 초이스 어워즈', SUV 본고장 미국 내 유수의 자동차 전문 언론에서 뛰어난 품질을 인정받았다. 4세대 모델은 미국시장에서 2012년 10월 출시된 이후 지난해 6월까지 31만대의 누적 판매를 기록하며 닛산의 베스트셀링 대형 SUV로 자리잡았다.

●첨단사양 추가하고, 편의장비 업그레이드

뉴 패스파인더는 4세대 부분변경 모델로, 철저한 시장조사를 통해 국내 고객들이 꼭 필요로 하는 기술과 사양들로만 구성해 실용성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외관 디자인이 진화했다. 차량 전면의 V-모션 그릴, 부메랑 LED 시그니처 헤드램프 및 리어램프 디자인 등 닛산의 패밀리 룩을 반영해 더 대담하고 날렵한 아웃도어 스타일로 완성됐다. 실내 공간도 여유롭다. 실제로 앉아보면 1,2열은 물론 3열까지 좁다는 느낌 없이 안락해 뛰어난 공간 활용성을 느낄 수 있다.

각종 첨단 편의 사양도 추가됐다. 기존 인텔리전트 어라운드 뷰 모니터와 인텔리전트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에 새로 닛산의 최첨단 인텔리전트 모빌리티(Nissan Intelligent Mobility) 기반의 안전사양을 장착했다. 인텔리전트 비상 브레이크, 인텔리전트 차간거리 제어 등의 첨단 안전 기술을 통해 패밀리 SUV가 가장 신경써야 할 안전성을 업그레이드 했다.

그 결과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서 실시하는 신차평가 프로그램(NCAP)에서 최고 등급인 별 5개를 획득했다.

이밖에 양손에 짐을 들었을 때 발동작만으로 편리하게 트렁크를 열 수 있는 핸즈프리 파워 리프트 게이트를 탑재하는 등 편의 장치도 한층 강화됐다.

●3.5리터 6기통 VQ 엔진의 여유로운 성능

뉴 패스파인더는 7인승 대형 SUV 이용자들이 가족을 위한 정숙성과 편안한 주행에 민감하다는 부분을 고려해 닛산의 대표엔진인 3.5리터 6기통 VQ 엔진을 탑재했다. 최고출력 263마력(6400rpm), 최대토크 33.2kg.m(4400rpm)의 강력한 성능이다. VQ엔진은 미국 자동차 전문 매체 워즈오토가 선정하는 10대 엔진에 1995년부터 최다 선정(15회)될 정도로 오랜 기간 성능을 인정받았다.

또한 국내에 나온 7인승 SUV중 유일하게 트레일러 토잉 기능을 기본 장착했다(트레일러 히치 별도 구매). 2268kg까지 감당할 수 있어 카라반 및 소형 요트 연결이 가능하다.

국내에서는 글로벌 판매 모델 중 최상위 트림인 '플래티넘' 단일 모델로 출시되며, 판매가격은 부가세 포함 5390만원이다. sereno@donga.com



세단과 스포츠카 매력의 이상적인 조화

포르쉐 '파나메라 4S' 출시…제로백 4.4초

포르쉐 코리아가 신형 럭셔리 스포츠 세단 '파나메라 4S'(사진)를 선보였다. 풀체인지된 2세대 모델인 신형 '파나메라'는 럭셔리 세단의 편안한 주행 감성과 강력한 스포츠카에서 누릴 수 있는 서킷 성능 두 가지를 이상적으로 조합한 '4도어 스포츠 세단'이다.

바이터보 가솔린 엔진과 새로운 8단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PDK)을 장착해 퍼포먼스를 끌어올렸다. 기존 모델 보다 20마력이 늘어난 440마력이며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 장착 시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h까지 4.4초이다. 연비는 8.8km/l(복합연비)이다.

차체가 커졌지만 역동적인 실루엣은 유지했다. 매끈한 숄더라인, 길어진 리어 오버행, 전면에 하나로 이어지는 블랙의 긴 바, 더 커진 공기 흡입구, 스포티한 측면, 과감한 유선형의 루프라인 등에서 스포츠카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

멀티터치 제스처 컨트롤의 12인치 터치 디스플레이가 포함된 새로운 포르쉐 커뮤니케이션 매니지먼트(PCM), 최신 한국형 내비게이션, 애플 카플레이 등 신형 테크놀로지가 적용됐다. 포르쉐 신형 '파나메라 4S'의 판매가격은 부가세를 포함해 1억7280만원이다.

원성열 기자

